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2. 11.(수) 12:00  
 (지면) 2026. 2. 12.(목) 조간

# 설 연휴, 교통사고와 산불 조심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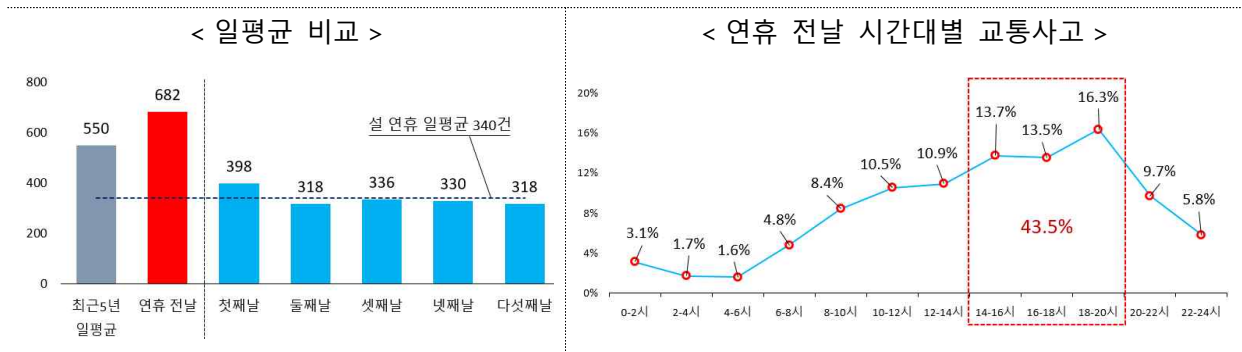
-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철저 및 어린이 안전의자 사용, 음주 운전 금지
- 성묘시 가져간 쓰레기는 되가져 오고, 성냥·라이터 등 가져가지 않기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설 명절 오가는 길 교통사고에 유의하고,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.

○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, 연휴 중 하루 평균 3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.

- 설 전후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, 평소(일평균 550건)보다 약 1.2배(일평균 682건) 많이 발생했으며,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3.5%가 집중됐다.

<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설 명절 전후 교통사고 현황 > (단위: 건, %)



[제공: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]

○ 명절에는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건수(일평균 340건)는 평소(일평균 550건)보다 줄지만,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2명으로 평소(145명)보다 오히려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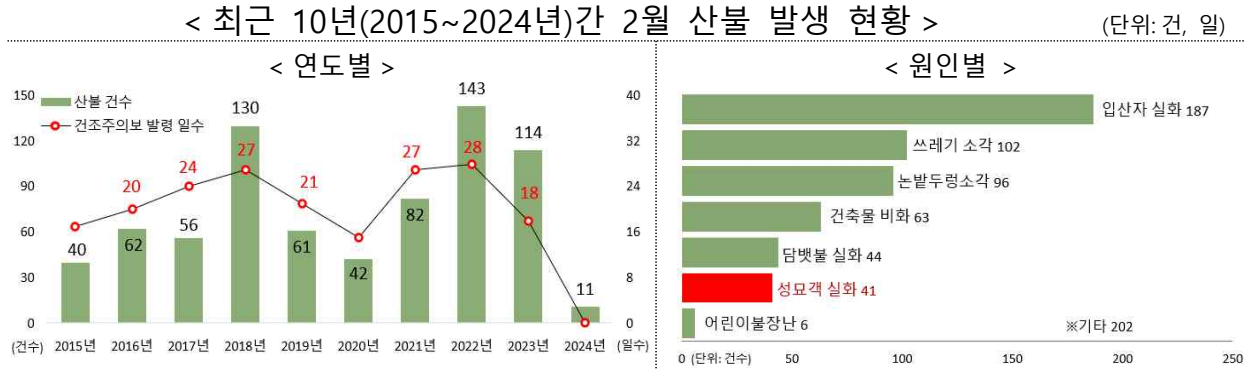
전 체 기 간 (최근 5년)			설 연 휴 (최근 5년)		
교통사고(건)	사상자(명)	100건당 사상자	교통사고(건)	사상자(명)	100건당 사상자
1,004,265	1,455,690	145명	7,226	12,426	172명

- 또한,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승용차 사고 비율도 평소(최근 5년 전체 65.9%)보다 9.8%p 높아졌다.

전 체 기 간 (최근 5년)			설 연 휴 (최근 5년)		
승용차	승합차	화물차	승용차	승합차	화물차
65.9%	5.5%	12.6%	75.7%	4.4%	7.4%

-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.
  - 장거리 운행이 많은 명절에는 출발 전 엔진, 제동장치, 타이어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.
  -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,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의자(카시트)를 사용한다.
  -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,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.
    -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고, 동승자도 지나친 대화로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.
    - 장시간 운전 등으로 피로하거나 졸음이 올 경우,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다.
  - 특히,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.
  - 날씨가 좋아도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, 터널, 지하차도, 급커브, 그늘진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지나간다.
- 한편,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성묘 등으로 산을 찾을 경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  - 최근 10년간(2015~2024) 2월에 발생한 산불은 총 741건으로, 2,662ha의 산림이 소실됐다.
    - ※ 최근 10년('15~'24)간 산불 발생 현황: 총 5,455건, 산림 피해면적 40,032ha
    - 건조한 날이 많을수록 산불 발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, 2022년에는 2월 한 달(28일) 동안 건조주의보\*가 발령되면서 143건의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.
    - \* 실효습도 35%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(기상특보 발표기준)

- 2월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(25%, 187건), 쓰레기 소각(14%, 102건), 논밭두렁 소각(13%, 96건) 순이었으며,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도 41건(6%)이나 발생했다.



[출처: 산림청, 산불통계연보]

- 올해 들어서도 벌써 총 85건\*(1.1~2.8.)의 산불이 발생했으며,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\* 지난해 동기간(1.1~2.8.) 산불 발생 51건 대비 약 1.7배

- 설 연휴 산에 갈 때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 산불 발생에 주의한다.

- 성묘 등으로 산행 시 성냥,ライター 등을 가져가지 않는다.
- 담뱃불은 주요 산불 원인 중 하나로, 묘지 주변은 물론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흡연하지 않는다.
- 묘지 주변의 마른 풀이나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, 성묘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온다.
- 산불을 발견하면, 즉시 산림청(042-481-4119), 소방서(지역번호+ 119), 경찰서(지역번호+ 112), 관할 산림관서에 신고한다.

- 하중목 예방정책국장은 “설 명절을 맞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건조한 날씨 속 성묘나 산행을 할 때는 작은 불씨에도 주의해,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 괄>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주무관	송정호 (044-205-4505)
담당 부서 <교통사고>	한국도로교통공단 시데이터전략처	책임자	처 장	홍경식 (033-749-5260)
		담당자	과 장	박해수 (033-749-5266)



# 산불 예방

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

영농부산물, 쓰레기 등  
불법 소각 금지



취사·야영·실화 등으로  
산불 시 처벌

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 
200만 원 이하 과태료



산행시ライター, 버너 등  
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



입산통제구역, 등산로  
폐쇄 구간 출입금지